



# 모두의 마을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2

## CONTENTS

4

인사말 |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김수영

6

함께 한 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11

모두의 마을은

12

모두의 마을 | Chapter 1. 오리엔테이션

14

모두의 마을 | Chapter 2. 전체 모임

모두의 마을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16

모두의 마을 | Chapter 3. 조별 활동

26

모두의 마을 | Chapter 4. 토크콘서트

28

모두의 마을 | Chapter 5. 결과발표회

30

활동 수기

34

기고문 | 이주배경청소년과의 공존  
• 관용과 다문화 감수성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이유정

## 김수영 |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마을’은 외국인 집중거주지가 형성된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청소년들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두의 마을’ 프로그램에는 이주배경청소년 11명과 한국청소년 10명 총 21명이 참여하여 외국인 집중거주지를 함께 탐방하고, 지역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상생방안에 대해 직접 현지 조사를 하며 진행되었습니다. 21명의 참가자들이 4팀으로 나뉘어 서울지역 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인 대림동·금천구 차이나타운, 이태원 무슬림 거리, 동대문 중앙아시아거리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활동에서 조사한 내용은 연구자들이 아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소년들이 조사한 자료이기에 그 깊이나 내용 면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청소년과 한국청소년이 함께 발로 뛰며 조사한 내용이기 그 진심을 잘 담겨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참여자들의 활동을 엮은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은 이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족한 활동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활동해준 우리 청소년들에게 따뜻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마을



#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간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들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적·공학적 기초 지식과 인문적·예술적인 소양을 함양해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인 'K-청소년활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100년의 국가 발전은 우리 청소년들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깨우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바라보고(Look Far) 높이 생각하고(Think High) 행동은 바로 지금(Act Now) 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미션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간다.

### 비전

미래 청소년활동 가치혁신 리더, D-KYWA  
• Design(주도적 설계), Diversity(다양한 경험), Digital(디지털 기반)

### 핵심가치

- 청소년 주도·의사결정 참여(Participation)
- 안전제일 원칙준수 안전(Safety)
- 청소년활동지원의 다양화 융합(Convergence)
- 변화·창조 주도 혁신(Innovation)





# 이주배경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사)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를 경험한 모든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적응에 힘들어하고 있을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GO단체입니다.  
국적, 피부색, 출신, 자라온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이주배경청소년이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밝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초기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초기 정착을 위한 언어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

- 한국어교육 : 한국사회 정착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한국어 교육 지원
- 진로·진학상담 : 편입학 안내, 학교 및 가정생활 상담, 진로 상담

### 교육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도입

- 검정고시 대비지도 : 공교육 진입이 불가능한 청소년 대상 초·중·고 교과목 지도 후 국가 검정고시 자격 취득
- 교과목지도 : 학교 교과목 수업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으로 집중 지도

### 통합지원

#### 이주배경청소년과 지역기관 및 선주민 간의 교류 기회 마련

- 문화체험활동 :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활동
-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 : 지역 내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과 선주민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
- 맞춤 멘토링 : 이주배경청소년 개인별 특성에 맞춘 멘토 연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마을

**모집대상** 서울 거주 및 수도권 대학 재학 한국 청소년, 청년 20명(만 24세 까지)  
서울 거주 및 수도권 대학 재학 외국 청소년, 청년 10명

**활동내용** 조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 주민 인터뷰, 지역 형성 역사 조사  
및 갈등 해결 방안 탐구, 갈등 해결에 대한 정책 제안 등 조별 발표

**지원방법**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홈페이지 (www.gycenter.co.kr) 방문  
모두의 마을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전송( gycenter@gycenter.co.kr)

**일 정** 모집 기간 2023년 6월 19일(월) ~ 7월 7일(금)  
오리엔테이션 2023년 7월 13일(목)  
조별 활동 기간 2023년 7월 20일(목) ~ 8월 11일(금) (기간 중 조별 모임 4차례 예정)  
결과 발표회 2023년 8월 24일(목)

**혜 택** 우수활동수기 시상 우수활동 조 상금  
- 여성가족부 장관상 - 최우수활동 조 50만원  
-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 우수활동 조 30만원

**문 의** (사)글로벌청소년센터 02-2201-7756



##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마을은

### 사업 목표

- 한국사회에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외국인 청년·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

### 세부 사업 내용

프로그램	일시 및 장소	사업내용/방법
OT	23년 7월 13일(목) 13: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의 마을 오리엔테이션</li> <li>• 전문가 특강 1 세계시민교육, UN-SDGs 교육</li> <li>• 전문가 특강 2 안전교육</li> <li>• 조별 모임</li> </ul>
전체 모임	23년 7월 24일(목) 13: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특강 3 민주시민의식 교육</li> <li>• 조별 조사지역 선정</li> <li>• 조별 활동 계획 수립 및 발표</li> </ul>
조별 활동	7월 ~ 8월 중 3회 이상 조별로 자율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조사 장소 방문</li> <li>• 조별 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활동</li> <li>• 발표자료(인포그래픽) 제작 관련 논의</li> </ul>
토크콘서트 및 결과 발표회	8월 24일 (목) 11:0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크콘서트 11:00 ~ 13:00 가수 이마젤, 방송인 자히드, 수잔, 일리아</li> <li>• 결과 발표회 13:00 ~ 15:00 조별 발표 우수 활동 조 선정 및 발표</li> </ul>

### 모두의 마을 월별 진행 내용

수행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사업 준비							
홍보 및 모집							
오리엔테이션							
전체모임							
조별 활동							
토크콘서트							
결과발표회							
사업 평가							

### 모두의 마을 진행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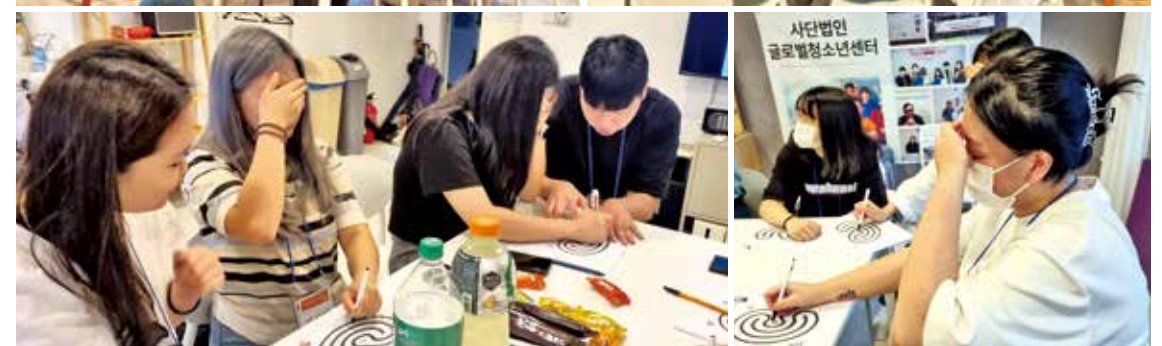
# 오리엔테이션

## 일시

2023년 7월 13일 (목) 13:00~16:00

## 내용

- (사)글로벌청소년센터 소개
-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마을 소개
- 전문가 특강1. 세계시민교육, UN-SDGs 교육/맘C상담교육연구소 소장 김미숙
- 전문가 특강2. 안전교육, 성인지 교육/유어스 인권상담소 소장 최승이
- 조원 발표 및 조별시간





# 전체 모임

## 일시

2023년 7월 20일(목) 13:00~16:00

## 내용

- 전문가 특강 3. 민주시민의식 교육/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윤태
- 조별 모임 - 조장선출
  - 조별 조사지역 선정
  - 조별 활동 계획 수립 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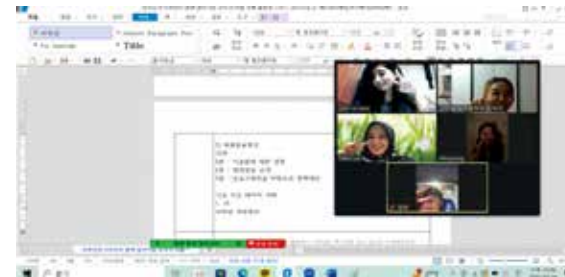
# 조별 활동

## 일시

2023년 7월 ~ 8월

## 내용

- 조별 활동 - 지역 방문 조사
  - 주민 인터뷰 및 양케이트
  - 조별 결과 발표자료(인포그래픽) 제작





# 1조

## 조별 활동 내용 및 사진



### 활동 내용

- ★ 조사 지역 : 영등포구 대림동
- ★ 조사 주제 :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외집단의 편견 및 혐오의 실체와 영향

### 활동 계획

- ★ 1회차 조사 설계
  -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과 관련한 자료조사
    -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관련한 사회적 의제 및 이슈들에 대한 자료조사
  - 설문지 제작
    - 외집단 인식조사
      - ▶ 설문 대상 :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 외에 거주하는 시민
    - ▶ 설문 내용 : 중국인 밀집 지역 및 중국인 이주민에 관한 인식조사
  - '구글 폼' 활용 설문지 제작
    -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 주민 대상 설문지 제작
  - 외집단의 설문 결과에 따른 질문 내용 변경 가능
- ★ 2회차 조사 실시
  - 대림동 현장 인터뷰
    - 현장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 정리
    - 외집단 인식조사 결과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관한 정보 수집
  -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대림동) 현장 조사
  - 지역주민과 인터뷰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와 인터뷰
- ★ 3회차 데이터분석
  - 설문조사 결과 및 인터뷰 정리
- ★ 4회차 발표 준비
  - 결과 발표에 쓰일 자료 제작 및 준비
  - 인포그래픽, 결과 발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2조

## 조별 활동 내용 및 사진

### 활동 내용

- ★ 조사 지역 : 이태원 이슬람사원(사원 주변 할랄식당 등)
- ★ 조사 주제 : 무슬림 할랄에 대한 인식

### 활동 계획

- ★ 1회차
  - 이태원 이슬람사원 사전 조사
  - 설문 내용 준비
- ★ 2회차
  - 이슬람사원 방문
  - 주민 인터뷰
- ★ 3회차
  - 인터뷰 영상편집
- ★ 4회차
  - 인포그래픽, 결과 발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3조 조별 활동 내용 및 사진



**활동 내용** ★ 조사 지역 : 중구(몽골 타워, 중앙아시아 타운)  
★ 조사 주제 : 이주민 한국 사회 정착 정책 조사

**활동 계획** ★ 1회차  
• 자료조사  
- 내국인과 이주민의 관계 조사 - 내국인과 이주민의 음식이나 복식 등 문화차이 조사  
- 중구의 이주민 거주 지역 특성 조사 - 이주민 대상 정책 조사

★ 2회차  
• 현장 조사 - 주민 인터뷰를 통한 인식조사

★ 3회차  
• 조사 내용 정리

★ 4회차  
• 인포그래픽, 결과 발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조별 활동 내용 및 사진 4조



**활동 내용** ★ 조사 지역 : 금천구 독산동 차이나타운  
★ 조사 주제 : 내국인과 이주민의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계획** ★ 1회차  
• 발표주제 선정  
- 독산동 사전 조사 및 인터뷰 설문 내용 공유 - 설문지 제작  
- 방문 기관 연락

★ 2회차  
• 독산동 차이나타운 방문 조사 - 이주민, 내국인, 지역 상인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 3회차  
• 인포그래픽, 결과 발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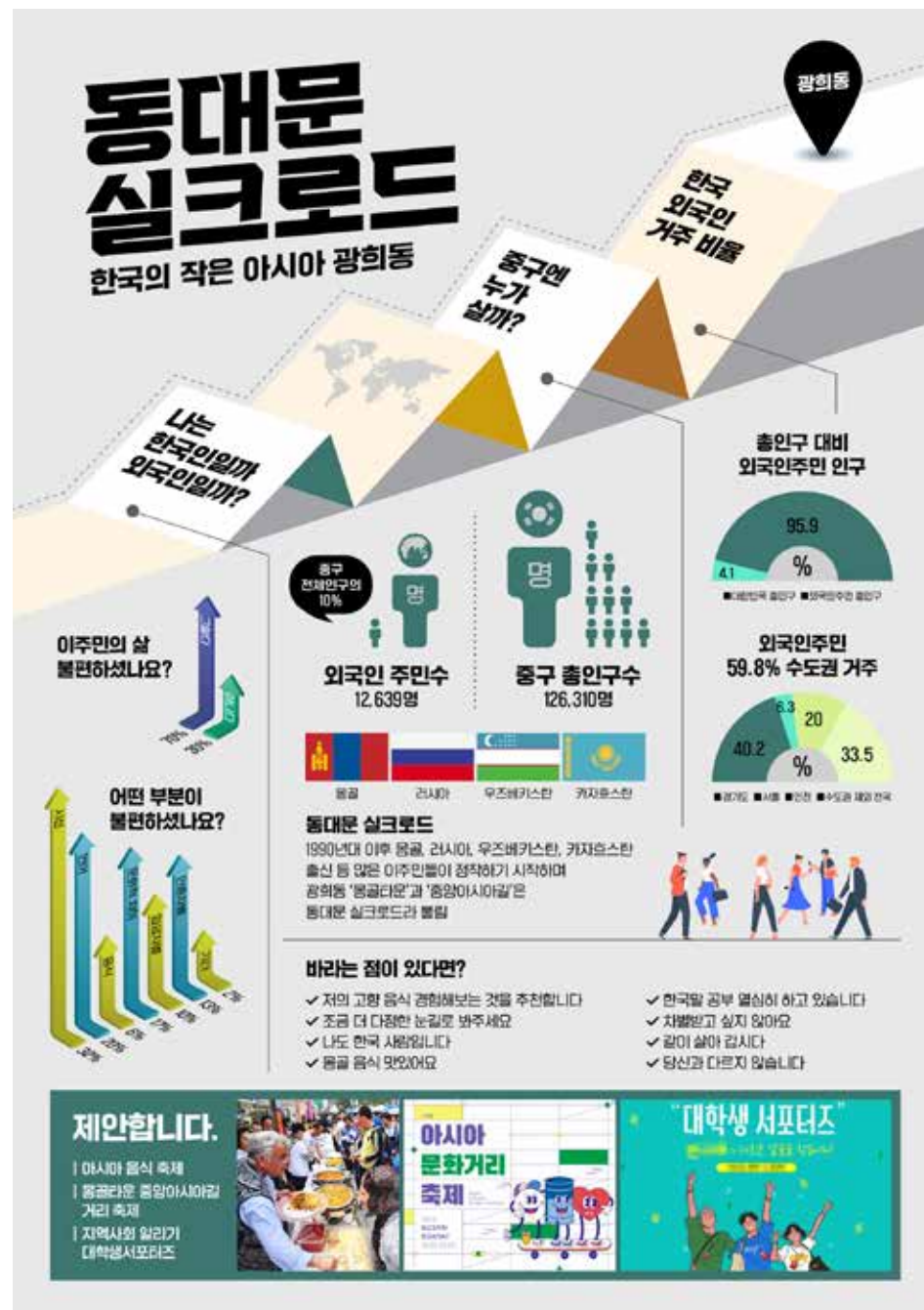
'중국 이주민 밀집 지역에 대한 대림동 내외의 인식비교'라는 주제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했습니다. 설문 결과 대림동 방문 및 교류 관련 경험이 50%가 미치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주민 밀집 지역에 관해서는 '위험, 시끄러움, 조선헌, 대림동, 범죄도시' 등 대부분 부정인 인식의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색안경을 벗고 우리 이웃을 바로 알아야지 않을까요?



## 2조

설문조사를 통해 이슬람의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조는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다양성 및 문화 교육 강화', 'SNS 무슬림 서포터즈 홍보대사 활동 지원', '온라인 캠페인', '지역 곳곳에 세계음식거리 조성'의 4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3조

실크로드 한국의 작은 아시아 광희동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전달하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아시아 음식 축제, 몽골다운 중앙아시아 길거리 축제, 지역사회 알리기 대학생 서포터즈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4조

첫 번째, 문화 외교의 활성화로 다른 문화에 대해 호감도 높이기, 두 번째, 여가, 취미 등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세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다문화간 차별과 무관심을 줄이기라는 정책 제안으로 3가지 정책을 내세우게 된 과정을 마라탕 각 재료로 표현하여 모든 재료가 어우러져야 맛있는 마라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이든 내국인이든 모두(재료)가 함께 다양하게 한 마을(그릇)에 마라탕처럼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 토크콘서트

## 일시

2023년 8월 23일 11:00~13:00

## 내용

- 유명 방송인과 이야기하는  
이주민이 살아가는 한국



## 모두의 마을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 모두의 마을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 발표회 내용

## 일시

2023년 8월 24일 13:00~15:00

## 내용

- 조별 결과 발표회
- 참가자 소감 발표
- 최우수/우수 조 발표





## 문화를 이어주는 길, 이해와 존중

김민정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주제 선택 이전에는 다른 국적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의 교류로 나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충격과 함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각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슬람에 대한 내 지식의 대부분은 주로 뉴스 매체를 통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주로 이슬람을 폭력적이며 여성 인권을 경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 종교적 신념과 달랐기에 마음 속에 편견의 씨앗을 심어두었다. 이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었다.

조사를 통해 한국 또한 무의식적인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임을 느꼈다. 이런 현실이 무슬림 뿐만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어려움의 한 요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깨달음을 토대로 무슬림들과의 교류와 상호 관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시작했다. 팀원들과 함께한 한 달의 시간은 짧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지식을 깨뜨리고,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왔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인식’ 즉, 사회적 감정이다. 초기의 생각과는 달리, 무슬림은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다. 짧은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느끼게 되었다. 서로 다른 삶의 양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간’이기에, 우리는 공존하며, 서로의 차이 속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내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사회적 감정을 키운 것 같다.

이번 경험을 통해 소박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 함께라는 가치

경보경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전공으로, 다문화에 대해 함께 공존할 방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공부했지만, 직접 느껴보고 또 가서 소통해보는 것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해서 기대되었다.

원래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인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중국 유학생분들과 함께 문제 인식과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겪은 예시를 이야기했다.

무관심은 차별을 불러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차별 또한 결국 포용의 전 단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방안과 인터뷰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막상 인터뷰를 하기 전, 가게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쑥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 인터뷰를 성공하니 자신감이 생겨서 더 웃으며 재미있게 인터뷰했다.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더 질문했고,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았다.

앞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항상 배울 점이 있다. 사명 이와 더 친해진 부분도 좋았다. 또한 처음에는 경계하시다가 말을 할수록 신나 하시는 중국 동포분들을 보니 지역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우리도 노력 해야겠지만, 더불어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 그리고 한국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느꼈다.

## ‘모두의 마을 만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임주이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어일본학과

### 1.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 :

모두의 마을 활동 전, 나는 ‘이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부장제, 폐쇄적인 종교 등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모두의 마을 활동을 하면서 이슬람사원과 할랄 식당에 방문해 무슬림을 만나고 무슬림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에 내가 가진 이슬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위에서 말했듯, 모두의 마을 활동 전, 나는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 주민과 한국인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하면 양쪽 입장을 알아보려 하지도 고 이슬람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한국인 입장에서만 공감하고 생각하려 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 무슬림을 만나고 이슬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면서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무슬림들과의 인터뷰 준비를 위해 이슬람, 할랄에 대해 공부하며 무슬림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 가치관, 문화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었다. 돼지고기를 먹고, 허잡을 쓰지 않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이슬람 문화 그 속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허잡을 쓰고 기도하는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 이후 무슬림과 한국인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인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무슬림의 입장도 고려해 문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 2. 협업 능력 향상 :

2조 조장을 맡아 팀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역할을 분담해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협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우리 조는 회의를 통해 팀원 개개인의 역량, 전문지식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했다. 행사 진행 사회자를 맡은 경험이 있는 ‘팀원 1’은 최종발표 진행 담당을 미적 감각이 뛰어난 ‘팀원 2’는 ppt 담당을 맡고 활발하고 사고성이 좋은 ‘팀원 3’은 인터뷰 응답자 섭외 담당을 영상편집 경험이 있는 나는 영상편집 경험을 살려 인터뷰 영상편집 담당을 맡는 등..

위처럼 각자 역할을 분담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며 팀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팀원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조정하는 것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조장을 맡으며 활동일지 작성, 예산, 일정관리 등 여러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며 팀을 이끄는 역할은 뽀빠이 흠어진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목표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고충과 책임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큰 보람도 주는 일임을 깨달았다. 2조 조장으로 활동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팀 활동을 하며 협업 능력을 기르고, 더 좋은 리더로 거듭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 다함께 만들어 가는 다문화 공동체로의 여정

안혜진 | 성공회대학교

프로젝트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이주민 밀집 지역 내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두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조원이 지역 내 갈등 말고 이주민 밀집 지역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사 주제로 제안했습니다. 저희 조가 선정한 지역은 이미 대다수의 주민이 이주민인 지역이었고,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역 및 사회문제로 논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두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이주민 밀집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 조사, 지역탐방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으며, 낮은 직접 접촉 경험과 왜곡된 미디어 재현이 혐오와 편견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오 표현에 관한 법 제정 그리고 문화 특구 지정, 문화 축제 진행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내 이주민 밀집 지역을 향한 인식이란 새로운 틀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협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장을 맡게 되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활동 초반 혼자 대부분의 과정을 혼자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의 방식이 협업의 의미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며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협업의 과정인데 효율이란 이름 아래에 혼자 모든 것을 진행하려 했던 저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혼자 결정하거나 이끌려고 하기보다 팀원들의 의견을 묻고, 팀원들이 더욱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협업의 과정에서 조장의 역할은 한발 물러나 조원들이 한 팀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참여 의지와 동기를 북돋는 데 있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이해하는 한마음이 되는 마을을 꿈꾸며

이사바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경영 복수전공

저는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라는 두 가지의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더 단단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적으로 이 6가지 핵심역량이 통합되어서 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하는 대책 방안을 얘기하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얘기하여 전달하였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역량에 이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저희 조는 서로가 원하는 바를 글로 먼저 적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원하는 방향을 잘 파악하여서 한 목표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나지 않은 점들은 생각나는 대로 추가하여 발표 전까지 연속으로 수정과정을 의사소통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저녁 10시부터 11시에 회의를 진행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피곤해도 시간을 다들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일정을 끝내고 하는 회의일에 중간에 모두가 피곤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기다리는 조원도 있었고 잠들어 연락을 못 받는 조원도 있었지만 서로 피곤 한 점을 알기에 몇 번 연락하고 회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 일로 문제 된 점은 따로 없었습니다. 조원들 서로의 의사소통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서로 사회정서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잘되어 같이 발달해 나가는 단계로 잘 프로그램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맡은 주 업무가 기관이나 인터뷰할 곳을 섭외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기관에 연락하여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을 받아 주시지도 않고, 제가 잘 못 한 것처럼 말씀하여 크게 겁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섭외해야 하는 큰 부담을 품게 되어 힘들었지만 해봐야 하는 도전 마음에 겁지는 않았지만 섭외하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로 저는 연락하여 요청을 못 할 것 같은 생각을 벗어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조원들이 '섭외 못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며 부담을 좀 덜어줘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로모로 조원들에게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모든 타인들이 더불어 공존하는 '모두의 마을'을 꿈꾸며

정예림 | 성균관대학교

'모두의 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프로그램 참여 전, 나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다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주민 밀집 지역 현장 조사를 가기 전에도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이러한 걱정은 실제로 현장 조사에 나섰을 때 현실화됐다.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고, 겨우 용기를 내어 인터뷰를 요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몇 번의 거절을 겪고 난 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그러나, 현장 조사가 실패로 끝날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터뷰 요청 방식에 대해 팀원들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를 설명하며 공모전, 밀집 지역 등의 단어를 사용했을 때 경계하는 듯했던 이주민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갑작스럽게 다소 낯선 한국어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한국어로 풀어 설명하는 방법, 질문을 줄이는 방법들을 팀원들과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낯선 타인에게 다가가고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배웠다. 거절당할 두려움에 빠져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소통 방식을 배운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두 번째로 배운 것은 '협업의 즐거움과 가치'이다. 사실 처음에 이주 배경을 가진 팀원과의 협업에 대한 걱정이 컸다.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서로에게 익숙한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하며, 이러한 나의 걱정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촬영을 전공하신 팀원분은 전문적으로 브이로그를 제작해주셨고, 중국어에 능숙하신 팀원분 덕분에 한국어가 낯선 이주민 인터뷰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팀원들 사이의 '다름'은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임을 배웠다.

## 지역 내 중국계 이주민과의 갈등완화 방안 마련 및 지역주민 인식조사

최지혜 | 남서울대학교

### 비판적 사고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비판적인 갈등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의사소통 :

문제점을 도출한 이후 관련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팀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배려하며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 이주배경청소년과의 공존

## - 관용과 다문화감수성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 유 정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1. 들어가기

우리는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봤으며 한 번쯤은 사용해본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사회의 뜻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문화사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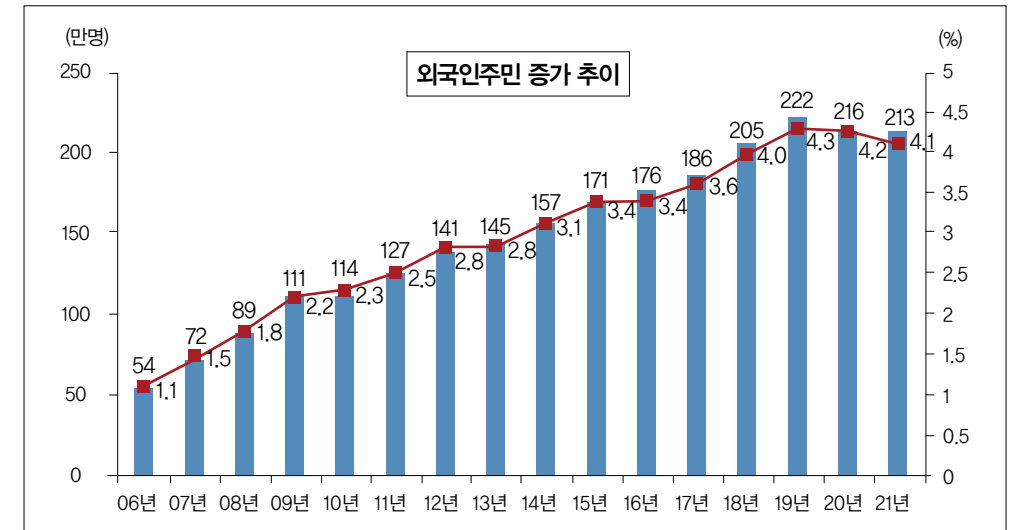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봤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는 인구학적 해석에서부터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사회라는 인권에 대한 가치와 사회문화적 측면의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에게 맞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미를 단정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나와 다른 생각, 언어, 문화,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함이 당연한 과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인구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수는 2021년 기준 213만 4,569명<sup>1)</sup>으로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유행이 감소하고 있

1) 출처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는 최근 경향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에 증가추세가 회복하여 지속적 증가추세를 전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림>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출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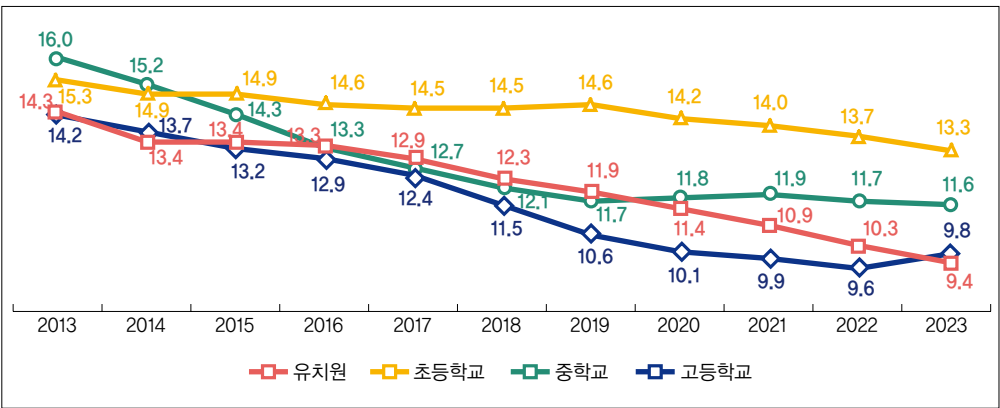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저출산, 인구소멸 등의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대두된 인구 유입정책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 예컨대, 경남, 전북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소멸이라는 지역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유학생과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인구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노동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법무부는 근로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안정성 확보를 위한 E7-4(숙련기능인력)비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이주 및 거주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 등 가족의 동반입니다.

인구정책의 변화는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기본 통계조사 결과 발표 자료(2023.9.1)에 따르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 수'는 올해 578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년 대비 9만 6천 명이 감소한 것이며, 이는 30년 전인 1990년(997만 명) 대비 전체 학생 수가 약 4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30년 만에 학생



10명 중 4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신문기사<sup>2)</sup>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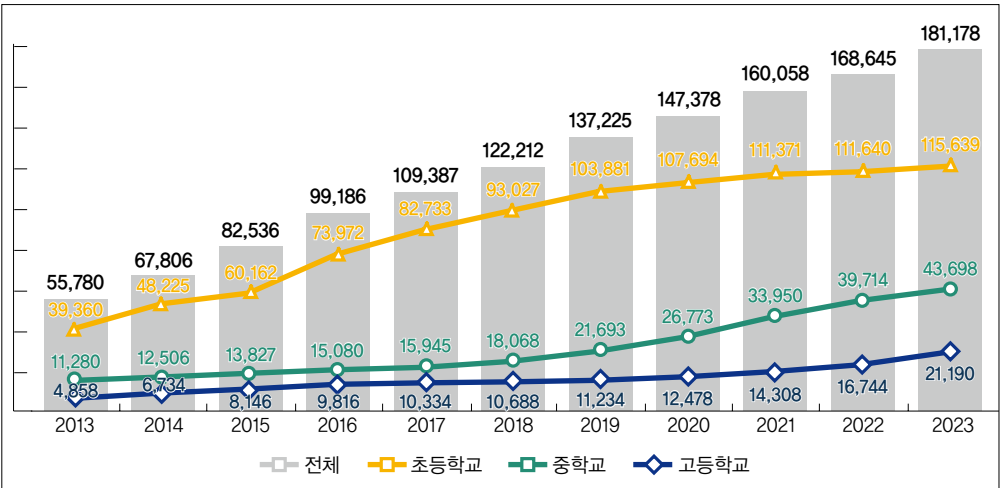
<그림> 학생 증감 추이



출처: 2023년 교육통계조사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2022년 기준)는 유치원은 17명,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23명으로 과거 1990년도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1990년 53명

<그림> 다문화 학생 증감 추이



출처: 2023년 교육통계조사

2) 사레뉴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 41% 줄어…한국 내 다문화 학생 수 10년 사이 3.6배 증가’ 이예지 기자(2023.01.10.)

→ 2022년 23명)가 57%나 떨어져 가장 많이 감소했고, 비교적 감소 폭이 작은 ‘유치원’도 41%나 감소한 것입니다. 전체 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다문화학생 수(초·중·고등학교)는 2022년 16만 9천 명으로 2012년(4만 7천 명) 대비 10년 새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유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학교의 변화는 매년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 II. 다문화사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나라는 함께 사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운용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한국에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주민으로서 우리에게 다른 소수자들의 문화를 알리고 이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결면과 단편을 살피는 데 그쳤다고 하겠습니다. 정작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이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이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웃과 사이좋게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원주민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관용(tolérance)과 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 관용

관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에서 관용(tolérance)은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용은 문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도덕적 가치이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이념입니다. 관용(tolérance)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인정하고 이를 행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퐁레



랑스(tolérance)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너그러움을 뜻하죠. 프랑스 사회의 핵심가치로 강조하는 관용(tolérance)은 '나와 다른 사람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나에게 대한 존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이성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 존엄과 평등을 기반으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용(tolérance)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념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다양한 의견, 신념, 가치관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체제입니다.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자연스럽고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사회가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관용(tolérance)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일것죠. 차이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사회갈등은 지나치게 심화하고 공존은 어려워집니다. 즉, 관용은 다양성 속에서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를 진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sup>3)</sup>

우리 주변에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더군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MZ”라고 부릅니다. “꼰대”와 “MZ”의 갈등을 세대 간 차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대갈등과 더불어 관용의 부재로 인한 문제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없는 것이죠. 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여하고 내 생각과 의사를 전달하여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제는 ‘꼰대 vs MZ’의 갈등상황을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관용의 상실’인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소중하게 믿어왔던 가치와 이념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도전하는 젊은 세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면서 교정하려는 기성세대를 낯고 쓸모없는 것으로 비하하고 희화하기 바쁘죠. 그렇게 모든 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두려워하고 저어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과 현명함을 존중하기 보다는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용(tolérance)은 없는 상태이죠.

3) 출처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696438>

## 관용의 사례

최근 스페인 전역에서 남자 교사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치마를 입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27일 스페인 한 학교에서 미켈 고메즈(15)라는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등교 후 퇴학당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옷에는 성별이 없다’라는 운동이 펼쳐졌다.

보र्ड판다에 따르면 당시 고메즈는 페미니스트와 트랜스젠더를 응원하기 위해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 학교 측에서는 그에게 “문제가 있다. 상담을 받아라”라고 말했고 그는 이 사실을 온라인에 밝힌 바 있다.

미켈 고메즈 사건 이후에 마누엘 오르테가와 보르자 벨라즈케즈라는 두 명의 남교사들은 지난 5월 초부터 학교에서 바지 대신 치마를 입고 수업을 하고 있다. 최근 그들이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애니메이션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소외되자, 내린 결정이다. 교내 ‘관용’을 가르치고 ‘의상의 자유 및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방법과 다양성, 관용을 교육하고자 한다. 뭐든 입고 싶은 대로 입어라!”  
- 보르자 벨라즈케즈



스페인 대부분 학부모는 교사들의 이런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먼저 치마를 입고 수업하자, 학생들도 학교에 갈 때 뭘 입든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메트로 UK에 따르면 한 부모는 “13살 아들이 어제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다.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합의하고 한 일이다. 그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미켈 고메즈 사건 이후로 많은 학생도 ‘옷에는 성별이 없다’라는 운동에 동참했다.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gender-male-skirts-spain\\_kr\\_60b72a0fe4b001ebd46b9c4f?utm\\_id=naver](https://www.huffingtonpost.kr/entry/gender-male-skirts-spain_kr_60b72a0fe4b001ebd46b9c4f?utm_id=naver)





## 2. 사회 안의 갈등 : 혐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혐오 표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혐오 표현(hate speech)은 인종·피부색·성별·장애·국적·종교·성적 지향 등의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나타내거나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sup>4)</sup>을 뜻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 현상이 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슴없이 혐오 표현을 하고 "표현의 자유"라거나 "웃자고 한 말이다"라는 등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낮은 감수성 등을 이유로 혐오 표현은 더욱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발간한 혐오 표현 리포트에서는 ‘혐오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은 어떨까요? 이 기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 혐오 표현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64.2%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대 80.7%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 표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혐

### <표> 혐오 표현 예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안보다도 김 여사네?"  
"○○출신은 원래 게으르자..."  
"○○족 짱깨들을 한국에서 몰아내자."  
"○○인들 때문에 코로나 19가 퍼지고 있다."  
"모든 ○○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다."

4) 출처: 두산백과 ‘hate speech’

오 표현의 경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 판단의 여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혐오 표현의 예들입니다.

예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혐오 표현이 존재하는데요. 혐오 표현 중에는 차별하고 온건한 방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예쁘게 꾸며야 한다.'라거나 '여자는 다소곳하고 조신해야 하는 법이야'라는 말은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행동 규범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장애인은 착하다'라는 표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심코 내뱉을 수 있는 혐오 표현과 상황을 인지하고 올바른 표현방법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의 폐해는 무엇일까요? 혐오 표현은 대상이 존재합니다. 대상이 된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인데요. 온라인의 특성이 더해져 더욱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존재에 대해 부정적 꼬리표 또는 낙인효과가 되어 혐오 표현을 당하는 당사자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다음은 혐오 표현의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sup>5)</sup>입니다.

### <표> 혐오 표현 당사자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역겹고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고 속이 텅 빈 느낌” “더욱더 나 자신을 감추고만 싶어지는 기분” “답답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피 곤하고 고통스럽다.” “내 존재는 처참히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혐오 발언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이 미워진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다.”

혐오 표현의 더 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은 당하는 당사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혐오 표현을 통한 차별 행동이 실제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농담 또는 장난으로 여기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오 표현을 통한 차별 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됩니다.

5) 출처: 경향신문 <[창간기획-혐오를 넘어]‘동성애 이해 못 해’... 교사, 부모도 혐오의 주체> (2017/10/18, 김지원 기자)



혐오 표현의 심각성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혐오 표현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과 행위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 <표> 차별금지의 필요성

### 차별 금지는 윤리를 넘어 ‘조직의 생존 문제’ (기사 일부 발췌)

- 시사인/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과 대학에서 차별 금지 정책에 힘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차별은 그 자체로 나쁜기 때문이다. 업무 역량이나 학문적 역량과 무관한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 차별 금지는 인류의 중요한 이상이자 헌법적 가치이며, 기업과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조직의 이익’이다. 한마디로 차별을 금지해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대학의 위상이 올라간다. 차별을 버려두는 기업은 평판이 떨어지고, 소비자나 이해관계자가 외면하기 마련이다. 평판이 나쁜 기업에는 인재가 몰리지 않는다. 인재들은 입사를 꺼리고 기업에서도 그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다양성은 혁신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유럽에서 실시된 한 연구(2016 DCG Survey)에서는 기업 구성원의 성별, 국적, 나이, 교육, 경력, 산업군이 다양할수록 혁신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매킨지 보고서는, 젠더 다양성과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 기업이 다양성이 낮은 하위 25% 기업보다 수익률이 각각 25%, 36%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기업이 젠더와 인종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연령·세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용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7>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집단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그 수가 적어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죠. 따라서 혐오 표현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수자들이 사회의 공적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혐오 표현은 아주 쉽고 빠르게 퍼집니다. 이러한 확산은 단지 이야기의 확산을

넘어 혐오 표현의 정도와 이를 실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혐오 표현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폭력과 ‘증오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큼니다. 혐오 표현에 따른 증오범죄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편견에 기반을 둔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증오범죄의 사례입니다.

#### <표> 증오범죄 사례

### 기사<sup>6)</sup> 발췌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이후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퍼졌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묻지만 범죄’의 양태를 보였지만, 범인이 피해망상을 갖고, 손상된 자존감에 대한 분노를 여성 상대로 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오범죄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중략]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성 소수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폭행 또한 증오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

증오범죄처럼 혐오 표현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소수 집단의 인격과 인권 자체가 부정됩니다.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간성,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순간, 집단 단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학살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도 많습니다. 유럽에서 네오나치<sup>7)</sup>가 다시 등장하거나 유럽에서 만연한 이주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반이민정서 등이 대표적이고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반무슬림, 반이민정서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증오범죄가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편견, 혐오표현, 차별, 편견에 기반한 폭력(증오범죄), 집단학살 등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인종차별주의자 등 혐오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6) 출처: 뉴시스, <[혐오를 혐오한다.④]갈등에서 범죄로...누적된 감정, 언제 터진다> (2018/09/10, 심동준 기자)

7)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부터 서독에서 일어난 우익운동 및 그 사상 (두산백과).



일이었고 트럼프가 했던 여러 가지 차별적 발언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차별이나 편견에 기반한 폭력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주로 이주자였지만, 그 후폭풍은 다른 소수 집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피해를 가진 혐오 표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오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함께 이야기했던 ‘관용’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혐오 표현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것이 ‘감수성’입니다. 앞으로는 ‘감수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 다문화감수성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몇 가지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문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사용하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다문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다문화청소년 등등 수많은 표현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일상적인 표현이라는 뜻이겠죠. 이 만큼이나 가깝게 다가와 있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다문화’라는 말.

우리는 정말 ‘다문화’를 가깝고 친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의 일터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볼까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공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언제부터인지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새롭고 조금은 다른 친구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 다른 언어, 다른 행동들. 당신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함께하실 건가요? 더럭 겁부터 날지도 모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직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간 진행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외국인주

민의 수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은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뜻하는 말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근로를 위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학업을 위해 입국한 유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의 한국 거주가 장기화 안정화되면서 최근 이들의 자녀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체류외국인의 수는 약 2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증가추세는 약간 주춤하였으나 지난 5년 동안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구성 변화의 흐름은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내국인 인력 수급난이 심해지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배경청소년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를 찾으려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의 자녀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2023년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수는 약 18만 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생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지난 5년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의 수가 감소하여 문을 닫는 학교가 증가하는 반면에 다문화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변화는 우리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다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거나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문화적 차이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방송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경험한 문화충격을 소재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갈등과 변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한국에서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다문화감수성의 중요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른바 다문화사회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통합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많은 서구의 나라들이 사회통합을 주요한 과제로 관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수집단이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는 문제로 이해하곤 합니다만 사실 주류사회로의 적응과 정착의 문제만으로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은 머나먼 이야기가 되기 때 문입니다.

청소년을 예로 들어봅시다. 통합의 문제는 이주배경청소년,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비(非)이주배경청소년, 즉 모든 청소년이 주체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등 이주배경청소년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 일반이 이주배경청소년과 같은 문화적 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문제의식은 모든 청소년교육현장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 대상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에서도 학교 또는 청소년시설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시설에서 모든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감수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교육과 활동을 전담하는 청소년전문가인 교사, 청소년지도사의 다문화감수성 역량 증진의 필요성과 더불어 모든 교육의 핵심 주제로서 다문화감수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2) 다문화감수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중요한 다문화감수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저기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뜻을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다문화감수성은 의미는 무엇 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문화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너그럽게 인정하고, 나와 모습이나 생각, 가치관, 행동방식이 다른 사람과 원활히 소통하고 함께하는 능력이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외모나 언어는 물론 생각과 행동방식도 다릅니다.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문화적인 차이를 흔히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인식합니다. 다문화감수성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쉽게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문화감수성이 높다'라고 개념화할 수 있죠.

<표> 두리안 이미지



출처 : <https://www.anews.com/detail.php?number=2008016&thread=01r01>

아시아뉴스통신 [포토뉴스] 열대과일의 왕 두리안을 아시나요? (2019/10/31, 윤의일 기자)

다문화감수성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겠습니다.

나라별 고유한 옷을 입고 고유한 음식을 먹는 등의 의식주의 차이나 인사법과 같은 행동 방식의 차이가 대표적인 ‘다름’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다름’은 가끔 인간관계에서 충돌이나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다문화감수성은 이러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름으로 인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상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까요?

잠시 즐겁고 행복한 상상해봅시다.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무엇이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상의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의 바다가 있는 도시로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한낮에는 외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열대기후의 도시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앞둔 흥분도 잠시, 공항에 내리자마자 당신을 덮치는 덥고 습한 불쾌한 날씨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낮선 날씨 때 문인지 당신은 입맛조차 잃게 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열대과일이 입맛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맛! 열대과일... 휴가 기간 내내 과일만 먹게 생겼습니다. 현지의 열대과일을 아주 잘 먹는 당신을 보고 현지 가이드는 새로운 과일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이거 모양도 냄새도 정말 이상하고 무섭습니다. 이름이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실제로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현지 가이드는 정말 귀하고 맛있는 과일이라고 먹어보라고 건네줍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맛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먹지 않겠습니까?

다문화감수성은 문화의 차이나 다름을 인식하는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다문화감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낯선 음식을 맛보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을 먹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새로운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을 즐기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모습이 이상하거나 냄새나 촉감이나 식감이 이상한 음식이라도 편견 없이 용감하게 먹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문화감수성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거나 새

로운 것에 도전하는 등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문화감수성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을까요?

다문화감수성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간 감수성의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 행동 역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문화감수성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간 감수성이 합쳐진 개념이죠. 다문화감수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간 감수성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인정하는 태도, 즉 인정과 관용의 정도를 개념화한 것이죠. 즉, 다문화수용성은 인종적 또는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람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영역으로 나뉘며 영역에 따라 다른 하위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수용성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서로

#### <표> 다문화수용성의 정의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정도”(오경화, 2011),
-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인지적 요인,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다른 문화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는 정서적 요인,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김미진, 2010),
-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 지하는 태도”(민무숙 외, 2010),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이지영, 2013)



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는 태도'라는 실천적 개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수용성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언급하며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감수성의 또 다른 구성요인인 문화간 감수성은 무엇일까요?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의 개념은 Milton Bennett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처음 주장한 개념입니다. 문화간 감수성은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문화간 감수성 발달 모델(DMIS)을 통하여 폭넓게 사용되어 개념화되었습니다.

#### <표> 다문화 감수성의 정의

- 둘 이상의 문화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Bennett, 2007)
- 특정한 고정관념에 고착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양계민 외, 2009).

문화간 감수성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뜻합니다. 즉, 문화간 차이를 쉽게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정도를 문화간 감수성이 높다고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 3) 문화간 감수성

문화간 감수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문화간 감수성 발달 모델(DMIS)은 문화간 차이를 인지하는 민감도와 차이에 반응하는 정서적 반응, 차이에 따라 대응하는 행동방식 등에 따라 감수성의 발달 정도를 몇 가지 단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의 개념은 Milton Bennett(1986, 1993)가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문화간 감수성 발달 모델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을 통하여 폭넓게 사용된 개념입니다. 문화간 감수성은 둘 이상의 문화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으로 정의되며(Bennett, 2007), 특정한 고정관념에 고착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뜻하기도 합니다(양계민 외, 2009).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개인들이 문화 간 장벽에 대처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각기 다르며, 문화 차이에 대한 감수성은 여섯 개의 발달단계로 구분됩니다(Bennett, 1993; Bennett, 2004). 이 여섯 단계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다문화감수성'(multicultural sensitivity)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0)</sup> 첫째, 다문화감수성 개념에서 '다문화'의 의미는 문화적 소수자 또는 소수자의 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그 자체의 의미로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둘째, 다문화감수성 개념에서 '감수성'의 의미는 하나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다양성),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관계(관계성), 세계시민으로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대하는 공평성(보편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다문화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역량"으로 아홉 가지의 핵심가치를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영역에서 내면화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다양성

문화적 다수자이든 문화적 소수자이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문화 내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 관용, 수용하는 개인의 경향성 정도를 말합니다.

#### ② 관계성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공감, 소통, 협력하는 개인의 경향성 정도를 포함합니다.

#### ③ 보편성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으로서의 개인의 경향성 정도를 말합니다.

#### 4)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

그렇다면,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sup>8)</sup>은 무엇일까요?

다문화감수성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살펴볼 수도 있으며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① 인지적 특징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인지적 특징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실제적 인식”, “민주주의 원리, 사회정의, 공정함과 동등함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문화가 가지는 세계관이 다양한 세계관 중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문화, 타문화, 문화간 차이를 사회정의, 문화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를 들면,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유럽 중심(Eurocentric) 세계관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아메리카대륙 발견의 역사를 미국 원주민 또는 인디언의 관점에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현재 미국 사회에서 미국 원주민의 문화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파악하려는 사람은 인지적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② 정의적 특징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정의적 특징은 앞의 두 연구와 더불어 다문화감수성을 다문화 의사소통 역량을 위한 정의적 영역으로 규정한 Chen & Starosta(2000)의 다섯 가지 세부항목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작용에의 참여(interaction engagement)’, ‘문화간 차이 존중(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 ‘상호작용에의 유능감(interaction confidence)’, ‘상호작용 향유(interaction enjoyment)’, ‘상호작용에 관한 관심(interaction attentiveness)’입니다(김정덕·모경환, 2011, pp. 200-201). 즉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의 정의적 특징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을 하려는 태도”, “문화적 정체성 확대를 넘어서 타문화 내면화 또는 진실한 관점 채택을 하려는 신념과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서 살게 된 한국인 2세가 두 개의 문화에 동시에 포함된다는 정체성 확대의 수준을 넘어서 두 문화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점을 채택할

<sup>8)</sup> 이향규 외(2013),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발췌 및 일부 인용.

뿐만 아니라 두 문화 공동체 구성원들과 동시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 ③ 행동적 특징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행동적 특징은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사이에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발휘”,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도 다름에 대한 이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또래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대중문화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탈북자 청소년들의 문화에도 익숙하여 두 문화 중 어느 편에도 무리 없이 적응하고 문화적 중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보통 문화적 차이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은 매우 낯선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낯선 것을 직면했을 때의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한번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MBTI는 사람의 성격유형을 설명하는 심리검사의 일종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해석도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처음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심리검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합니다. MBTI는 성격을 나타내는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사람의 성격유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성격의 특징과 행동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MBTI의 성격유형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쯤에서 왜 MBTI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문화간 감수성 발달모델에 따르면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개인들이, 문화 차이로 인한 문화충격이나 문화 간 장벽에 대처하고 해결방법을 탐색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마치 MBTI처럼 성격유형이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요. 문화간 감수성의 핵심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현명한 결과에 도달할 수 없듯이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문화간 감수성을 기르는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간 감수성 발달모델에 따르면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감수성은 여섯 개의 발달단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럼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클릭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화간 감수성 발달모델에서 다문화감수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무엇인가요?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에 따르면 6단계 중 통합의 단계의 사람이 가장 높은 다문화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리안 이야기 기억하시죠?

두리안 이야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보는 두리안의 외모와 엄청난 향기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맛보는 사람은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통합'의 단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 단계에 가까운 사람일 수록 새로운 것, 낯선 것,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문화감수성이 통합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다문화감수성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즉, 차이를 깨닫는 여부, 차이에 대해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 차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여부 이러한 인지, 정서, 행동의 3가지 측면에서 발휘되고 이 3가지 측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개인의 다문화감수성이 높아지려면 3가지 영역 모두에서 각각의 반응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존재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행동적으로는 개

방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면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감수성이 무엇인지 다문화감수성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감수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까요? 청소년 교육에서 다문화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 4. 미래시대에 필요한 역량

우리에게 다문화감수성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수행한 DeSeCo 프로젝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5년 OECD은 미래시대를 살기 위한 생애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정의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3개의 핵심역량 범주를 제시하고 있고 각 핵심역량 범주마다 3개의 하위핵심역량<sup>9)</sup>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점은 미래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3가지 핵심능력 중 하나로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표> Bennett의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DMIS)

발달단계		하위 6단계와 그 특징	
자민족 중심적 단계	자신의 문화가 현실인식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차이를 회피	부정 Denial	자신의 문화만이 진짜 문화라고 생각함. 문화차이를 회피함.
		방어 Defense	다른 문화들 간의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자신의 문화가 가장 세련되고 좋은 것으로 여김.
		경시 Minimization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경시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문화와 같다고 생각. 자신의 문화와 세계관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김.
민족 상대주의적 단계	문화차이를 추구하고 타문화의 맥락에서 자신의 문화를 경험	수용 Acceptance	타문화가 나의 문화는 다르지만 동등하게 현실을 구성함을 인식.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가치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인지 고려함.
		적응 Adaptation	인지적 틀을 바꿔 타문화의 관점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음. 타문화 관점에 공감하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느끼고 행동에서도 코드전환이 이루어짐.
		통합 Integration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을 어느 한 문화에 정박시키지 않고 자아개념과 자아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적 세계관 사이의 이동을 포함하도록 확장됨. '건설적 주변성'을 가짐.

<표>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개념 틀

핵심역량 범주	하위 핵심역량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타인과 원만한 관계 맺는 능력
	팀으로 일하며 협력하는 능력
	갈등을 관리 및 해결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전체적 조망 속에서 행동하는 능력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능력
	권리, 이익, 한계, 요구를 주장하고 지키는 능력

9) 출처 : OECD DeSeCo 및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일 고찰: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교육과정전공 이사영 석사학위논문, 2019 발체 및 일부수정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는 점차 다양화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의 이해와 인정,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인구학적·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미래의 다문화사회에서는 공감 이 중요한 소통의 요소이며 자신이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찾고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삶과 일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DeSeCo 프로젝트는 이러한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위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 잘 관계 맺는 능력,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종적·문화적·언어적 차이 등 다양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협력과 팀워크 할 수 있는 능력, 하나의 목표 아래 타인과 능동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공동체 의식 의미가 이와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관계 또는 비즈니스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능력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민주적이고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르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다문화감수성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과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살펴본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인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의 하위 핵심역량이 청소년 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문화감수성이 청소년 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청소년 교육의 핵심 주제와 내용으로 다문화감수성을 채택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인구 구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 노령화 사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외국인주민의 지속적 증가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은,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규모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를 충분히 뿌리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이 가로막은 장벽을 건너 통합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오랜 과제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고 겪고 있는 크고 작은 통합의 과정이 우리가 가진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요?

이주민과의 공생은 어른의 세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종전까지 모두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조금은 ‘다른’ 친구들이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교육 현장에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5. 우리의 다문화감수성 진단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다문화감수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문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다문화감수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턱없이 부족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다문화수용성 조사 구성요소

	차원	하위구성요소	내용
발달	다양성	① 문화개방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유입 및 정주에 대해 인정
		② 국민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 기준에 대해 다양성 인정
		③ 고정관념 및 차별	외국 이주민에 대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관계성	④ 일방적 동화 기대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 및 순응을 기대
		⑤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 접촉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⑥ 상호교류 행동 의지	이주민과의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보편성	⑦ 이중적 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⑧ 세계시민 행동 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및 실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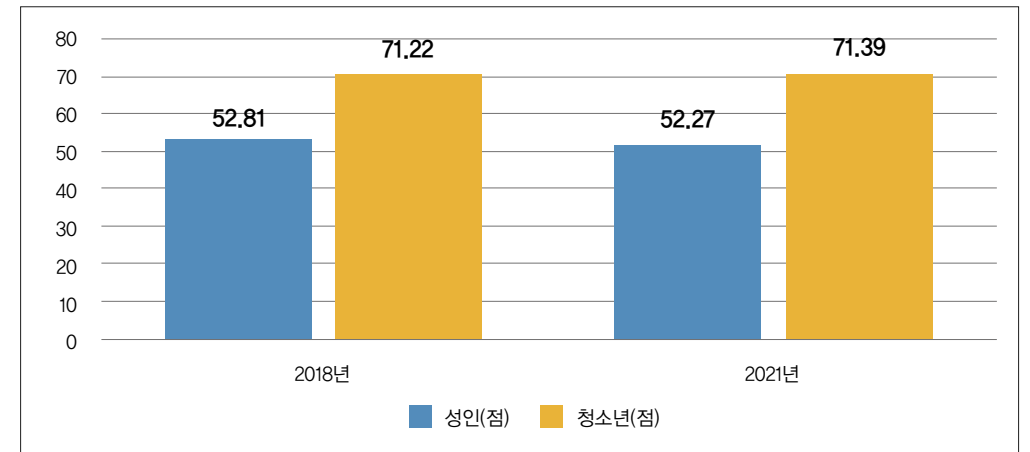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일반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다문화수용성지수를 개발하여 2012년부터 주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조사는 다문화수용성을 3개의 차원, 8개의 하위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소를 측정한 값을 합하여 ‘다문화수용성지수’산출합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록 100점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게 됩니다.

다문화수용성조사는 2012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8, 2021년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민 일반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보다 되려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세부항목 분석결과를 보면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보기보다 2018년 당시의 외국인 또는 다문화에 대한 일시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은 2018년과 비교하여 청소년(71.39점)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년 18.41점 차이→’21년 19.12점 차이).

<표> 다문화수용성 조사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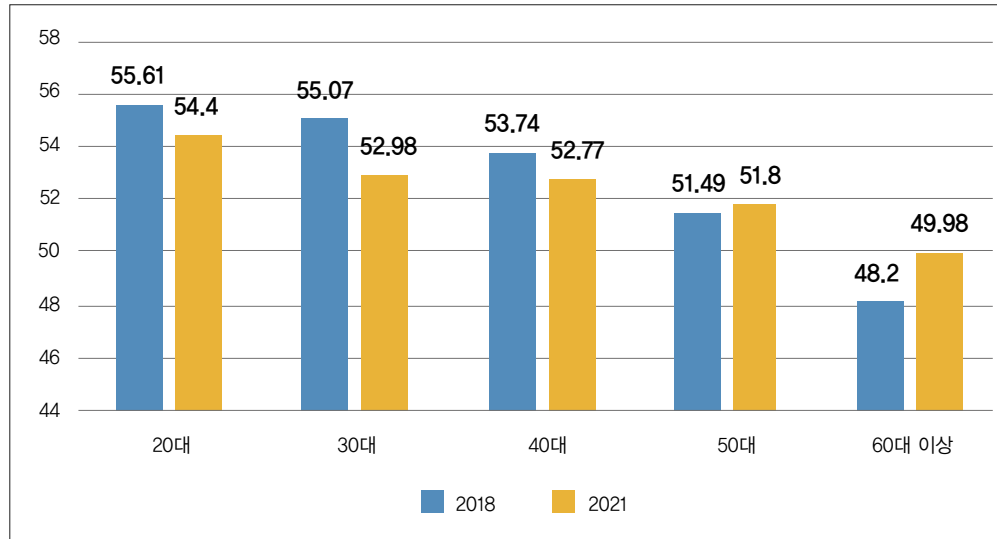


구분	2015	2018	증감	2021	증감
성인(점)	53.95	52.81	1.14 감	52.27	0.54 감
청소년(점)	67.63	71.22	3.59 증	71.39	0.17 증

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2021년도 조사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조사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동일하게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은 20대 54.40점, 30대 52.98점, 40대 52.77점, 50대 51.80점, 60대 이상 49.98점으로 고연령일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경향성을 보입니다(중학생 73.15점, 고등학생 69.65점). 2018년과 비교하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하락했지만 50대 이상은 상승했고, 50대 이상은 여타 연령대보다 다문화수용성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12년 이후 지속 상승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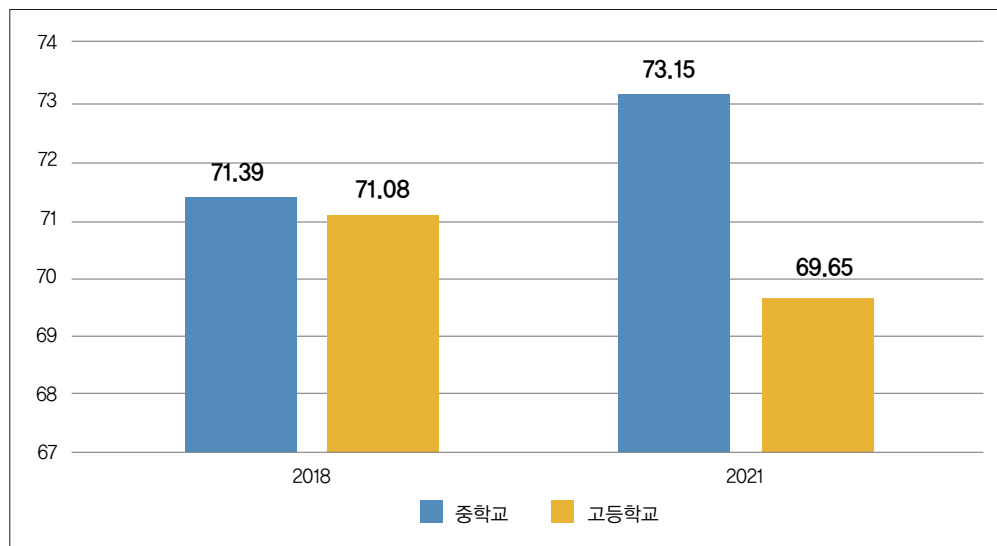
<표> 다문화수용성 조사 구성요소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어떨까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71.39점입니다. 이는 2018년 결과치인 71.22점보다 많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성인보다 높고 이전 조사보다 향상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청소년 학급별 다문화수용성 격차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다문화감수성 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 중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승했지만, 고등학생은 하락하여 2018년에 비해 학교급별 격차가 확대(2018년 0.31점 차이 → 2021년 3.5점 차이)됐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변화양상이 반대로 나타난 것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중학생의 높은 다문화수용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감수성은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다문화감수성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Ⅲ. 마무리

지난 반세기 동안의 진행된 민주화와 인권의식의 성장으로 다문화감수성도 점차 향상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한 다문화적 현실에 비해 우리의 다문화감수성 수준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조금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정서적인 공격을 경험한 친구의 사례도 있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생각. 한국에서도 본국에서도 이방인이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운 친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주배경 때문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자리 잡지 못해 힘들어하며 결국 학교도 일자리도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을 거라며 비판하는 친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함께 행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주배경청소년이 우리에게 적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문화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 참고문헌

- 김미진(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덕, 모경환(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감수성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 김이선 외(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8-60.
- 민무숙 외(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2-51, 여성가족부
- 오경화(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 이사영(2019). OECD DeSeCo 및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일 고찰: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향규 외(2013),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ennett, M.J.(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Paige, R.M.(Eds),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2nd ed.),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Inc.
- Bennett, M. J.(1986),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Cross-cultural orientation: New conceptualizations and applications, New York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p. 27-70.

---

##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마을

발 행 일	2023년 9월
발 행 처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발 행 인	김수영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33 3층
전 화	02-2201-7756
홈페이지	www.gycenter.co.kr

